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진 민 진 배 성 만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각 척도에 대해 답하였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대처양식 중에서도 부적응적인 대처양식인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는 그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했으며, 대인관계 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그 관계를 부적으로 매개했다. 경로모형 검증 결과 지각된 차별감의 직접효과가 가장 컸으며, 매개변인 중에서는 억제형 대처가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을 일으키며, 역기능적인 대처를 낮춰주고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울에 대한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중국인 유학생, 문화적응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우울,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현대 사회는 점점 국경이 허물어지며 국제화 및 세계화로의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나 외국인 취업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입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

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인해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유학생 현황 통계(2010)에 따르면, 2000년 3,963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5년 만인 2005년 15,577명으로 4배 늘었고, 2010년 2월 기준으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는 총 87,480명으로 또 다시 5배 늘었다. 그 중 중국 출신이 2005년 64.9%에서 2010년 77%(66,635명)로 가장 많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유학생생활을 즐기는 반면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게 겪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문화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즉, 문화 환경 상의 변화인 문화적응(acculturation)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나임순(2006)은 외국인 유학생이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Berry(1997)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를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등이 해당된다(Sandhu & Asraba, 1994).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Smart & Smart, 1994). 국내의 연구에서도 국제학교 학생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어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윤수정, 2009; 채송희, 2009).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특히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백미, 2010; 장혁심, 2005; 최현, 2008). 지각된 차별감이란 자신이 속

한 집단의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Mirage, 1994; Sanchez & Brock, 1996; 서한나, 2009, 재인용).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드물지 않는데, 이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고 서구인과 비서구인의 이분법적 및 차등적 개념만 있기 때문이다(유명기, 1995).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온 서구인에게는 비교적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비서구인인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은 후진국 출신으로 생각하여 은연중에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갖기도 한다(김재우, 2005). 이러한 태도로 인해 중국인을 전근대성 및 경제적 빈곤과 연관하여 인식하게 되고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미친다(김규원, 1995).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지각된 차별감은 극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도 관련을 보인다(서한나, 2009). 여러 선행연구는 지각된 차별감이 정신적 건강의 결손을 가져오며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및 고통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Dion, Dion, & Pak, 1992; Yoo & Lee, 2005). 특히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Noh & Kaspar, 2003).

이러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므로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Coping-Adaptation Theory)을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를 자신의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가 되는 요구를 관리하는 인지적·행동적인 노력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대처양식을 취하면 이를 통해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고,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고 말하였다. 즉, 대처가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Harrell(2000)은 인종관련 스트레스 모형에서 대처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채향화(2011)는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사이를 대처가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대처양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대처양식을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 자체를 다루는 대처이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려는 대처이다. 이러한 정서 중심적 대처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관계가 있고(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우울, 불안, 신경증이 관계가 있다(Endler & Parker, 1994). 즉 정서 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적인 결과와 연관된 대처양식이다.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는 문제에 대한 회피와 감정적인 반응 모두를 포함한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이동귀, 박현주, 2009).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에서도 문제회피와 감정표현이라는 대처행동의 차이가 적응에 다르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울이라는 부적응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회피적인 대처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Heppner, Cook, Wright와 Johnson(1995)는 대처양식을 3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기존의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려형 대처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억제형 대처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동형 대처로 세분화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의 역기능적 대처양식에 따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처양식, 통제감, 민족적 정체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만 검증은 시도하였고, 대인관계적인 변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서한나, 2009; 채향화, 2011). 대처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채향화(201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등 다른 변인을 추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함을 논의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더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라는 대인관계적인 변인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심리학적인 매개변인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홍미기(2009)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을 포함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 사이를 매개하였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의 저하를, 사회적 지지의 저하는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에 대한 개입을 실시할 때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적 지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은재(201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강력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이나 우울, 심리적 적응과 조절, 및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게 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다면, 지각된 차별감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므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두 가지 역기능적인 대처양식인 억제형 대처 및 반동형 대처와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 어학당, 학부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 총 235부 중 결측치 등이 있어서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201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 201명 중 남학생이 48명(23.9%), 여학생 153명(76.1%)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3.03세(SD=2.381, 범위 17-32)였다.

측정도구

지각된 차별감.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S; Acculturative Stress Scale)를 이승중(1996)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경수영(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문항 중 지각된 차별감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 8개를 선별하여 사용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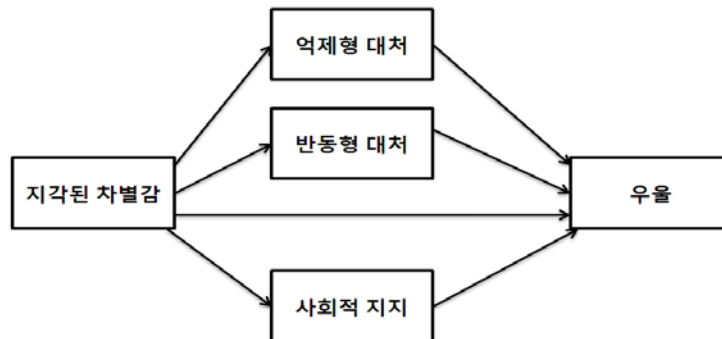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

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 였다.

우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척도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역한 척도를 경수영(2010)이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역척도 4문항을 포함하여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 였다.

대처양식. 대처양식은 문제중심 대처양식 질문지(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 Heppner et al., 199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F-SOC는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려형 대처(reflective coping style)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대처양식을, 둘째, 억제형 대처(suppressive coping style)는 문제 상황과 문제해결 활동을 회피하려는 대처양식을, 셋째, 반동형 대처(reactive coping style)는 개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문제해결 활동을 왜곡하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대처양식을 뜻한다(이동귀, 박현주, 2009).

본 연구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세분화한 억제형 대처와 사려형 대처의 패턴을 알아보고자 억제형 대처 6문항과 반동형 대처 5문항을 선별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통해 중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억제형 대처 .77, 반동형 대처 .71 이었다.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후 이승미(2004)가 축약형으로 제작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해 한지은(2007)이 중국어로 번역 및 요인분석을 시행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 였다.

연구절차

어학당,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수거 후에는 자료의 특성을 알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우울,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우울 점수는 60점 만점에 평균 16.61

(SD=8.9)점이었다. CES-D에서는 보통 16점 이상을 유력 우울증, 25점 이상을 확실 우울증으로 보는데(박준혁, 김기웅, 2011), 조사 대상자의 평균 우울 점수가 유력 우울증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유력 우울증인 16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총 106명(52.74%), 확실 우울증인 2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총 35명(17.41%)이었다.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반동형 대처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경로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종속변인인 우울이 성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199) = 1.901, p=.059$.

경로모형 검증

그림 1의 가설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의 상관이 높았기 때문에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의 오차 간 상관을 포함하여 그림 2와 같은 모형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지각된 차별감과 종속변인인 우울 간의 직접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11.903, df = 2, p = .003$ 이었고, $GFI = .977, CFI = .965, NNFI = .826, RMSEA = .157, SRMR = .047$ 이었다. 비록 RMSEA가 .100 이 넘었지만, Hu와 Bentler(1999)가 바람직한 모형의 기준이라고 제안한 CFI .96 이상인 동시에 SRMR .10 이하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쟁모형으로 그림 3과 같이 독립변인인 지각된 차별감과 종속변인인 우울 간의 직접경로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 대한 경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 = 36.616, df = 3, p = .000$ 이었고, $GFI = .934, CFI = .882, NNFI = .607, RMSEA = .237, SRMR = .076$ 으로, .900 이상인 GFI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의 값은 좋지 않았다.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가 1 변한 반면 χ^2 값은 24.713이 변하였기 때문에 두 모형은 서로 독립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이 더 간명하지 않더라도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후 경로분석에서는 경쟁모형이 아닌 연구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우울,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경로분석 결과 모든 경

표 1.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M	SD
1.지각된차별감	-					16.8	6.07
2.우울	.506**	-				16.61	8.90
3.억제형 대처	.351**	.579**	-			13.36	4.28
4.반동형 대처	.348**	.474**	.636**	-		12.69	3.77
5.사회적지지	-.238*	-.386*	-.254*	-.072	-	43.66	9.78

* $p < .05$, ** $p < .01$

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 모두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은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는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차별감으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았고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으로 인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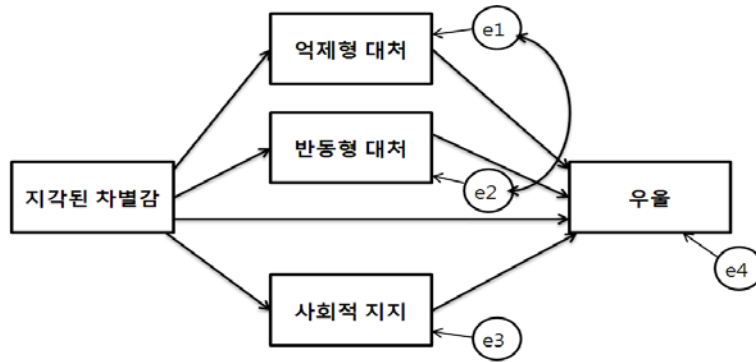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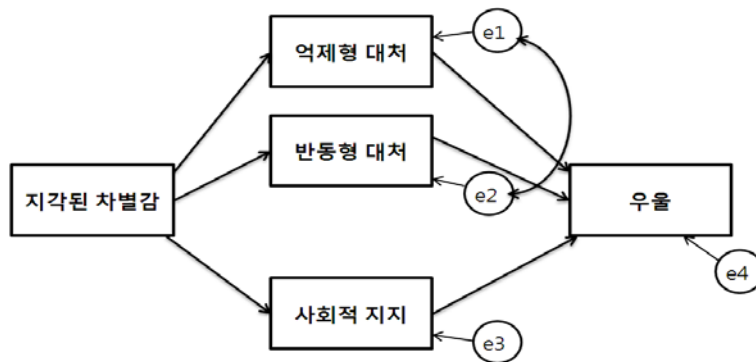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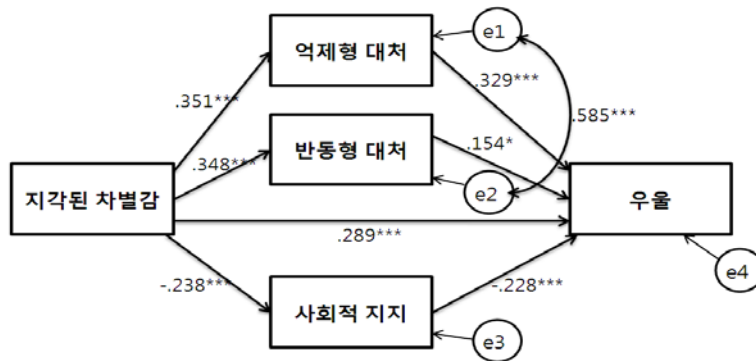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표 2.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차이검증

	χ^2	df	p	GFI	CFI	NNFI	RMSEA	SRMR
연구모형	11.903	2	.003	.977	.965	.826	.157	.047
경쟁모형	36.616	3	.000	.934	.882	.607	.237	.076
차이	24.713	1	.000					

그리고 사회적 지지 모두 Z값이 1.96 이상이었으므로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종합하면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89 였으며, 세 매개변인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223(억제형 대처 매개의 경우 .115, 반동형 대처의 경우 .054, 사회적 지지 매개의 경우 .054)이었고, 총 효과는 .512였다($p<.001$).



(경로는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 $p<.001$)

그림 4. 최종 경로모형

표 3. 경로계수, 표준오차(S.E.) 및 검증통계량(C.R.)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지각된차별감→억제형대처	.248	.351	.047	5.307	.000
지각된차별감→반동형대처	.214	.348	.041	5.257	.000
지각된차별감→사회적지지	-.383	-.238	.111	-3.463	.000
억제형대처→우울	.675	.329	.138	4.894	.000
반동형대처→우울	.362	.154	.158	2.288	.022
사회적지지→우울	-.205	-.228	.047	-4.332	.000
지각된차별감→우울	.419	.289	.082	5.095	.000
e1←e2	8.168	.585	1.144	7.140	.000

표 4. Sobel 검증 결과

	Z	p
지각된차별감→억제형대처→우울	3.587	.000
지각된차별감→반동형대처→우울	2.098	.036
지각된차별감→사회적지지→우울	2.706	.00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에 의해 대처가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스트레스와 우울이라는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우울과 정적으로 상관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라는 두 가지 역기능적 대처로 나누어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처라는 개인내적인 변인 이외에도 대인관계적인 변인인 사회적 지지도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 및 종속변인에 대한 성차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t 검증을 시행한 후 경로분석을 시행하여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상관분석 이후 원래 정서 중심적 대처에 속하는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라는 두 역기능적 대처의 상관이 높음을 고려하여, 두 변인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인 지각된 차별감과 종속변인인 우울 간의 직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직접 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연구모형이 Hu와 Bentler(1999)가 제안한 기준에 더 적합하였기 때문에 이를 최종 모형으로 하여 추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였고, sobel 검증 결과 모형 내 세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도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경로 모두가 검증 결과 처음의 연구모형대로 채택되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지각된 차별감이 증가될수록 우울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는 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서한나(2009)의 연구 및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채향화(201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지각된 차별감의 증가는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의 증가는 우울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황나리(2011)와 채향화(2011)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모형에서 적극적 대처만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봐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대처를 세분화하여 보았고, 두 가지 역기능적 대처 모두가 기존 연구의 적극적인 대처처럼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내었다. 특히 황나리(2011)의 연구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소극적인 대처와는 관계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대처와는 관계가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대처는 적극적 문제해결 행동을, 소극적인 대처는 문제의 회피나 방어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본 연구는 그러한 소극적인 대처를 역기능적인 대처로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차별감의 증가는 사회적 지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울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상관이 높으며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황나리(201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가 아닌 지각된 차별감 단독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다른 변인에 비해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의 평균 점수는 16.8점(SD=6.072)이며 이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1점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서한나(2009)와 채향화(2011)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 지각된 차별감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학생은 공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문화에 들어와 비교적 단기간 머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민자와는 다른 심리학적 특징을 가지므로 지각된 차별감 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겪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의 경우 본국에서도 주류사회의 구성원인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문제 또한 크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타문화에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대부분 자아중심성이 강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해당한다는 것 때문에 언어, 인간관계 등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평균적인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학생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큰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며 또한 차별감을 지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로분석이 실시된 모형을 살펴보면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89, 억제형 대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15, 반동형 대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54,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54 였다. 지각된 차별감의 직접효과가 가장 컸는데 이는 지각된 차별감 그 자체가 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 매개변인 중에서는 억제형 대처의 간접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감정적 반응으로 개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하여 문제해결을 왜곡하게 하는 반동형 대처보다는 문제 상황과 문제해결 활동을

회피하는 억제형 대처가 더 큰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임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차별감으로부터 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우울에도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지지는 두 가지 역기능적인 대처양식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매개하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나인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역기능적 대처인 억제형 및 반동형 대처가 정적으로, 대인관계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부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개의 경로모형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억제형 대처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우울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차별을 지각하면 억제형 대처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폭발하는 반동형 대처를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유학생을 더 우울하게 할 것이다. 두 대처양식 중에서도 매개효과가 더 컸던 것은 억제형 대처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개인 내적으로 억제하고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유학생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대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이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게 되면 차별로 인해 사회적 지지 또한 덜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차별감으로 인해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철회를 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차별을 느낄 때 사회적 지지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경로분석에 사용된 모형에는 억제형 대처의 오차항과 반동형 대처의 오차항간의 상관이었다. 이는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를 설명하

지 못하는 요인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 모두는 문제 해결과는 반대되는 역기능적 대처에 속하며, 둘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r=.636, p<.01$)이기 때문에 오차 간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역기능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라는 하나의 변인으로도 묶여질 수 있는 두 변인인 만큼 두 변인간의 상관 및 두 변인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상관관계가 높게 존재하지만 이 두 변인은 문제 회피와 감정적 표출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과적으로 매개효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분석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을 더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의 어학원, 대학교 학부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학생 모두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어떤 과정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상자가 느끼는 지각된 차별감이나 우울, 대처, 및 지지 모두가 다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표집에서의 제한이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 소재 몇 대학에 표본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눈덩이(snow-ball) 표집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선표집에 가까울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국내 중국인 유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의

의가 존재한다. 첫째,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연구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종종 존재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과 지리적 및 정서적 거리가 가깝고 외모도 비슷한 중국인 유학생이 차별감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와, 또 이것이 우울이라는 심리적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매개변인인 대처를 분석할 때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를 문제의 회피와 감정적 표출이라는 두 양식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가 문제 해결 및 심리적 적응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임을 밝혔으나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어떤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로 나눠서 분석하였고, 비록 두 대처 양식의 상관 및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존재했지만 억제형 대처가 반동형 대처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보임을 밝혔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의 방향성을 계획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인관계적인 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인내적인 변인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지지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사이를 부적으로 매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증가와 관련된 개입을 통해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표집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했던 매개변인을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저하 등 주관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평균 경증 이상의 우울을 보고하였는데, 억제형 대처와 같은 역기능적인 대처를 덜 쓰고 대안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수영 (2010).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총집, 7, 213-255.
- 김은재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와 충남(천안.아산)지역거주.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박준혁, 김기웅 (2011). 한국의 우울증 역학에 대한 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5), 362-36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미 (2010).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관련 요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0). 유학생 현황 통계 2010.
- 서한나 (2009). 아시아권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민족적 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7, 145-181.
- 윤수정 (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43-57.
- 이승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규,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채송희 (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향화 (2011).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통제감,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 (2008).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은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정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나리 (201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모형 검증 :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적극적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 -68.
- Dion, K. L, Dion, K. K., & Pak, A. W. (1992). Personality-based hardiness as a buffer for discrimination-related stress in members of Toronto's Chinese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4, 517-536.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Task, emo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1), 50-60.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95, 107-113.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 42-57.
-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C. Jr.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279-293.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e Equation Modeling*, 6(1), 1-5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Noh, S. & Kaspar, V.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232-23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andhu, D. S., & Asraba,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3-448.
- Smart, J. F. & Smart, D. W. (1994). The rehabilitation of hispanics experiencing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Rehabilitation*, 60, 8-12.
- Yoo, H. C. & Lee, R. M. (2005). Ethnic identity and approach-type coping as moderators of the racial discrimination/well-being relation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97-506.
- Wei, M., Ku, T-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H. (2008). Moderating effect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원고접수일: 2011년 7월 1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4일

게재결정일: 2011년 11월 2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4, 783-797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in Jin Jin

Sung-Man Bae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fter 201 participants answered four questionnaires, path analysis was done in order to find out mediating eff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lso, suppressive coping and reactive coping, which are maladaptive coping strategies, mediated positively, and social support, which is the interpersonal variable, mediated negatively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The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the largest, and among indirect effect of mediators, effect of suppressive coping was the largest. This study suggested that perceived discrimination cause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the intervention should be done about decreasing maladaptive copings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Lastly, the limit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words: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depression,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